

# 筆巖書院 山仰會報



막동 河西先家 御敍梨

인사말 |

## 山仰會長 就任에 즈음하여

會長 吳仁均

2007년도 山仰會 정기총회에서 천학비재인 이 사람을 제3代 회장으로 선출하여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소임을 다할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훌륭한 초대 安普燾 회장님, 2대 朴鍾達 회장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겠아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 과학 문명의 영향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의 傳統 文化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山仰會는 人本的 윤리 도덕을 바탕으로 한 儒敎文化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성현의 행적과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배워서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 생활에 알맞게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儒敎는 孔子의 사상을 宗旨로 하는 人本主義的 윤리의 敎입니다. 明德, 親民, 止於至善의 세 강령은 유교의 기본 理想이요 格物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8조목은 인간의 內的 修養을 거쳐서 外的 德化의 과정을 명시하여 그 이상을 완수케하는 단계적 기본행위를 밝힌 것입니다.

유교의 요점은 하늘에는 元亨利貞의 天道가 있어서 이 天道의 命한바에 의하여 사람에게는 仁義禮智의 人性이 있으며, 이 人性이 唯一精純

하여 知天命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天道와合一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간사물이 無爲而成하여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그 人性의 開發을 가장 중시하였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學不倦하여 克己復禮하는데 注力하였습니다.

孔子 이후로 유교는 여러학파로 나누어졌지만 顏子, 曾子, 子思를 거쳐서 孟子에게 전수된 학파를 정통학파로 삼습니다. 子思는 天命說을 孟子는 性善說을 각각 주장하였고 周張程子를 거쳐 朱子에 이르러서 유교는 性理學說로 傾注되어 人心道心과 四端七情의 哲學的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이 학설이 고려말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조선 왕조의 중엽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하여 유교철학의 개화기를 맞이하였습니다.

靜庵과 같은 道學者가 이 땅에 태어나 한국유학사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儒學의 正統을 이어받은 河西先生은 오직 性理學의 탐구로 심오한 경지에 이르러 性理學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이 땅에 성리학을 꽃피우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인 成均館은 고려의 太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朝鮮 太祖 7년

에 성균관을 明倫洞에 설치하고 文廟를 세워 大成典이라 하였으며 孔子를 비롯하여 五聖과 孔門 10哲 宋朝 6賢 우리나라 賢人을 봉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고을마다 鄉校를 세워 유교 교육의 진흥을 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1542년에 주세붕이 白雲洞書院을 세움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전국에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약 200년동안에 전국 각지에 370개의 서원이 설립되어 私學 교육의 전성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서원에는 향교와 동일하게 교육기능과 교화 기능이 있습니다. 聖賢을 본받고 유학을 공부하며 中丁日 또는 下丁日에 제사를 지내고 지방 풍속을 교화했습니다.

우리 筆岩書院에 배향된 河西 선생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大儒 賢이십니다. 先生과 서원을 위하여 우리 山仰會가 조직되었는데 河西 先生을 百世의 師宗으로 숭양하고 필암서원을 聖學 수련의 道場으로 영구보존하고 道學 節義 文章을 연구하여 斯道를 계승발전시키에 있다고 그 目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교의 정신문화를 실천하는 우리 山仰會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발전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

春秋享祀를 잘 奉行 하고 학술발표회를 열며 선비학당을 활성화시키고 山仰會報를 계속 발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회원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회원확장에 열정을 보여야겠습니다. 이와같이 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서원문화와 선비문화를 고귀한 우리의 정신문화로서 계승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깊은 갈등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윤리 도덕이 타락의 늪

에 빠져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질서도 예의도 찾을 길이 없으며 스승과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오직 우리의 전통규범이 조금 남아 있어 그나마 사회와 가정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교의 본바탕인 윤리도덕의 회복 없이는 우리의 가정도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구성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이 파괴된다면 우리 사회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윤리도덕이란 인간사회조직의 원초적 원리이고 규범이며 개개의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는 윤리도덕을 체득함으로써 양심에 기본한 자각과 각성을 부단히 행하고 극기를 통하여 자신을 지키며 자율적 실천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실천력에 의해 인간에 내재된 무한의 본능적 욕망과 방종이 자제되고 규제될 때에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결속이 생성됩니다. 이 상호간의 신뢰와 결속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산양회원들은 이 고장 유림의 요람인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인성을 개발하고 배워서 克己復禮하는데 主力함으로써 윤리 도덕 회복에 앞장서야겠습니다.

# 河西先生の〈與友人書〉에 대하여

## 圭庵 宋麟壽와 河西

김재수 광주교대 명예교수

〈與友人書〉는 河西先生이 友人에게 평생에 뜻한 바를 아뢰는 서신이다.

자신의 修學 과정과 읽은 책, 존경하는 스승, 사귄 벗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서신이다. 河西의 수학과정과 정신세계와 인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서신이다. 기준, 김안국, 최산두, 박상등을 스승으로 받들었고 김약목과 유희춘을 사귀었음을 밝히었다. 읽은 책들을 언급하면서 수학과정을 자세히 밝혔다. 또한 우연히 金翔浩를 절간에서 만나 至論을 들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河西가 서신을 보낸 友人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河西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인 友人이 누구인지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 서신에서 언급한 〈友人〉은 과연 누구일까? 우선 이 서신에서 단서를 찾아보자.

“내가 淸塵을 접촉한지도 역시 오래였으니, 門牆에서 承受하여 몸과 마음에 공효를 이룩한 것이 남보다 다르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門牆은 스승인 모재 김안국의 집을 지칭한다. 이르면 河西는 友人을 오래전부터 사귀었으며, 스승 모재의 집에서 자주 만났음을 알 수 있다. 友人은 모재의 집을 드나드는 문하생이며 모재가 伯樂처럼 아끼는 人物이다.

또한 河西는 유희춘과의 왕복서신에서 〈慎獨〉이라는 말이 언급된 것을 보고 증자, 자사, 程朱가 재삼 새긴 것인데, 이를 말하는 이가 있

음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흠모하는 마음에서 友人의 집으로 달려갔는데 湖儒에 대해 기꺼이 언급하고 金翔浩란 인물에 대해 말하자 ‘진실로 그렇다고 동의하여 友人과 河西가 서로 목계가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요한 인물인 김상호에 대해 추적해 보았으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어 안타깝다.

“道를 아는 군자를 만나고 보니 청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한갓 高山景行의 생각만 간절하므로 감히 평생의 뜻한 바를 이와같이 아뢴다.”고 河西는 友人에게 고백하고 있다. 이르면 友人은 河西가 지극히 존경하는 인물이다.

모재와 절친한 門下生이며 河西와 오래 사귀었고 유희춘과 절친한 인물로 규암 송인수를 지목할 수 있다. 河西集에는 규암 송인수와 관련된 시 8편이 전한다. 이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長城客館敬次圭庵宋公麟壽相公韻(번역본 중 24쪽),
2. 題圭菴詩券(中, 522쪽),
3. 廣寒樓韻(中, 524쪽),
4. 送李都事還京(中, 525쪽),
5. 次圭菴相公韻(中, 526쪽),
6. 龍城 奉別圭庵相公(中, 527쪽),
7. 圭庵赴都之行(中, 528쪽),
8. 風詠亭次圭庵韻(中, 529쪽)

이들 詩에서는 규암을 〈相公〉으로 존칭하면서 깍듯이 받들고 있다. 규암의 詩卷에 題文을 쓸 정도로 서로 아끼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깍듯이 받들고 있는 11세 연상인 규암에게 <

友人)이라 칭할 수 있는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友인과 朋人是 다르다. 朋은 동년배의 동창을 지칭하지만 <友>는 뜻을 같이하는 同志를 뜻하니 나이가 11세나 위라도 友人이라 지칭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모재의 문하생으로서 오랜 사귀어 있었고 김굉필, 조광조, 김안국의 학통을 이어받은 존경하는 동지로서의 우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개인적인 서신에서는 <友人>이라 지칭한 것으로 본다.

모재도 어린 河西를 <나의 小友>라 고사를 들어 말하지 않았던가? 또한 서신에서도 高山景行의 생각이 간절하다고 지극한 존경을 표했다. 이와같은 여러 단서로 미루어보아 友人은 규암 송인수로 추정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규암 송인수는 (1499-1547)는 정암 조광조의 스승인 尹偉에게서 배웠다. 윤탁은 김굉필의 제자로 기묘명현이다. 규암은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인 모재 김안국의 문하에 드나들며 학문을 연마했다.

퇴계, 주세붕, 이언적, 김인후와 절친했다. 특히 시강원에서 河西와 절친한 丁爌과 뜻이 맞는 동지였다.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河西와 자주 만났으며 모재의 문하에서도 자주 만난 절친한 사이였다. 특히 1543년 전라도 관찰사로 좌천되어 왔을 때에 영암에 耆英亭을 세우고 인근 13고를 수령들의 협조를 얻어 성리학을 장려하고 학문을 토론했는데, 특히 남평현감 유희춘, 무장현감 백인걸과 뜻이 맞았다. 仁宗이 등극하자 동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때에 河西와 만나 이별의 詩를 읊은 것이 위에 말한 8편의 詩이다.

규암은 전라도 관찰사로 내려와 을사사화를 피할 수 있었으나 윤원형의 탄핵을 주도한 혐의로 그의 미움을 사 1547년 양재벽서사건에 엮여 청주에서 사약을 받았다. 규암은 어렸을 때부

터 학문에 정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성리학에 높은 경지를 이루어 당해에 존경을 받았던 대학자이다. 전라도 관찰사로 내려와서도 성리학의 진흥에 전념한 것으로 유명하다. 여러 관직에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김안로 윤원형의 부정을 탄핵하여 춘추대의를 실현한 선비로 존경받는다. 그러나 사약을 받고 죽게 되어 그의 문적이 보존되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그에 대한 이런 자료가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근래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에서 규암의 경제사상과 학문을 연구하여 학술발표를 하고 <유학연구>(2006)에 논문을 발표하여 그의 사상과 학문을 재조명하고 있어 다행이다.

※ 이 글을 읽으시고 <興友人書>와 관련된 규암선생의 자료를 규암과 하셔도 높이 평가했던 金翔鵬란 인물에 대한 자료를 알고 계신분은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우인(友人)에게 준 서한(興友人書)

공부자의 말에 이르기를 『언(言: 문장을 이름)을 지닌 자라 해서 반드시 덕(德)을 지닌 것은 아니다.』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말로써 사람을 들어 쓰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군자가 한갓 외식만을 일삼아서는 아니됨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를 알아줌이 없음을 걱정할게 아니라 알아줄 수 있게 하기를 구하라.』 하였으며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성문(聲聞)이 실정에 지나지는 것은 군자가 부끄러워한다.』 하였으니 그 마땅히 힘쓸 바는 오직 실지에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나 같은 자는 체(體)를 밝히는 학도도 아니요 용(用)에 맞는 재주도 아니며 소싯적에 취업(就業)하였으나 시골구석에 묻혀 있어 사우(師友) 견문의 유익이 없고 단지 병려(駢麗) 주대(倣對)의 작(作)을 배워 세상에 이름을 얻었던 것이외다.

응교(應敎) 기준(奇遵)이 교리(校理)로 있을 적

에 마침 이웃에 와 나를 불러보고 돌아가면서 데리고 가려 하다가 못했는데 돌아가서는 대내(大內)에서 내려준 붓을 보내주곤 하였었지요.

그 후에 《소학(小學)》의 글을 모재(慕齋: 金安國) 상공(相公)에게 강하자 상공은 한번 보고 왕원지(王元之)의 소우(小友)에 대한 고사를 들어 그 막좌(幕佐) 김공에게 말하여 칭찬을 받은 일이 있었으며 이윽고 벗으로는 김약묵(金若默)을 얻어 비로소 학자란 당연히 추향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듣고 마음에 자못 기뻐으나 어떻게 구해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스승으로는 최신재(崔新齋: 山斗) 님을 얻어 모시어 그 의용(儀容)의 명랑하고 빼어남과 사기(詞氣)의 크고 넓음에 탄복하였으며 곧 박눌재(朴訥齋: 祥)를 뵈게 되어서는 그 언론이 격려(激厲)하고 움직임과 숨이 정숙(整肅)하여 또 사람을 감동케 하였으니 그 또한 말로 전하고 입으로 줌을 기다리지 않고도 혹 양심이 계발(啓發)된 바 있었습니니다.

물러나와 우연히 진서산(眞西山)의 독서기(讀書記)를 열람하여 증민(蒸民) 첫째 장의 뜻을 논한 대문에 이르러는 비로소 하늘과 사람은 하나로 돌아감과 동시에 실리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깨닫고서 내심에 학자가 마땅히 중사할 것을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대략 주려(朱呂)의 한천(寒泉)의 편을 섭렵하고 몽사(蒙士)의 훈에 미치자 「시에 흥기한다(興於詩)」라는 한 가지 말에 깊이 감명된 바 있어 먼저 주자(朱子)의 집전서(集傳序)를 읽으면서 그옥이 생각한 바 「성기(聲氣)는 비록 다시 상고할 수 없을지라도 정성(情性)이야 고금의 다름이 없은즉 진실로 그 장구(章句)를 잘 풍영(諷詠)하고 그 의의(意義)를 탐구하여 그 기상을 바

로잡으면 어찌 옛사람이라 해서 미처 가지 못할까분가도(道)는 오로지 여기 있다。」하고 드디어 그 글에 나아가 하루에 한 편을 외우되 한결같이 주자의 읽는 법에 의거하여 보아 갔습니다. 말에 깊이 감명된 바 있어 먼저 주자(朱子)의 집전서(集傳序)를 읽으면서 그옥이 생각한 바 「성기(聲氣)는 비록 다시 상고할 수 없을지라도 정성(情性)이야 고금의 다름이 없은즉 진실로 그 장구(章句)를 잘 풍영(諷詠)하고 그 의의(意義)를 탐구하여 그 기상을 바로잡으면 어찌 옛사람이라 해서 미처 가지 못할까분가도(道)는 오로지 여기 있다。」하고 드디어 그 글에 나아가 하루에 한 편을 외우되 한결같이 주자의 읽는 법에 의거하여 보아 갔습니다.

스스로 가슴 속을 돌아보면 비록 조금 트이고 시원한 생각은 있는 것 같으나 근기가 두텁지 못하고 함양(涵養)이 익숙지 못하여 실천 이행하는 즈음에 종시 나의 소유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필경은 누(累)에 얽매어 업(業)을 마치지 못했으며 다시 이른바 몽사(蒙士)의 훈이란 것을 가져다 보았으나 역시 그 요령을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또 주염계(周濂溪)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가져다 읽기를 《시경》 읽듯이 하되 공력은 십 배나 더했으나 다만 그 방불을 상상할 뿐이며 역시 착수할 곳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르러 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알고서 폐하고 말았거니와 이 때는 또 진취(進取: 科擧를 말함)에 끌리어 회접(會接) 문자(文字)의 사이에서 공졸(工拙)을 교계하는 처지라 내면에 치력하는 것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마침내 대학(大學)의 글을 읽고서야 그 소학(小學)과 더불어 종시(終始)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초학으로서 덕(德)에 들어가자면 이를 놓고

서는 문을 삼을 것이 없다 생각되어 바야흐로 훈해(訓解)를 자세히 보고 「혹문(或問)」으로써 참고하였으나 역시 실득이 있지 못한 채 갑자기 이백 명의 대열에 끼어 십 년 동안에 오락가락 노닐며 세월만 허송했으니 그 전에 겨우겨우 얻었던 것마저도 한 번은 태학관(太學館)에서 즐겁게 노니느라 폐하고 두 번째는 시와 술로 방랑하는 사이에 폐한 셈입니다.

통이논지하면 한가하고 조용한 때는 적으며 번잡하고 요란스런 날이 많아서 혼매(昏昧)와 방일(放逸)만이 갈수록 심해지니 잠깐 나아가다 도로 물러나고 곧 있던 것도 갑자기 없어져 마침내 행동은 말과 다르고 이름은 실상과 어긋나는지라 이렇게 되고서는 소인의 길로 흐르지 않은 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알아 밝지 못하고 행동이 살핌 없고 몸이 불초한 탓이라 이미 스스로 허물하거나와 역시 처음에 지도하고 성취시키는 그 사람이 없었던 까닭이며 반드시 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서로 알아도 익숙하게 알지 못하고 서로 만나도 조용히 가슴을 풀고 한번이나 마 속 이야기를 나누며 강론(講論) 변질(辨質)을 못 얻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옛일에 상고하는 것이 현실에 증명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서적을 뒤적이는 것이 사람에게 참조(參照)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는데 지난 해에 우연히 김상호(金翔浩)를 만나서 함께 절간에 모여 비로소 한가닥 지론(至論)을 들었으나 그에게 존유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가슴 속에 쌓인 것을 다 물어보지 못하고 드디어 서로 작별하였으니 이제껏 회상할 때 개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청진(淸塵)을 접촉한 적도 역시 오래였으니 진실로 문장(門牆)에서 승수(承授)하여 몸과 마음

에 공효를 이룩한 것이 반드시 남보다는 다름이 있다는 것을 알거니와 그 김상공(金相公)의 알아주고 대우함에 있어서는 가위 백락(伯樂)의 문에 함께 들어갔다 이를만한테 나 같은 것은 실로 감당하기 부족한 처지이오라 다만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 사이 유군(柳君)이 기록한 왕복서간 속에서 신독(慎獨) 두 글자를 얻어 보고는 더욱 경의를 표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아! 이는 바로 증자(曾子) 자사(子思)의 주고받은 바요 정주(程朱)의 재삼 새기고 새긴 것인데 뜻밖에도 이 세상에 다시 이를 말하는 이가 있음을 보겠으니 이는 바로 일찍이 스스로 힘쓴 것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이로써 남에게까지 미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 흠모하며 문정(門庭)에 달려가 마침내 뵈게 되었는데 인사를 차린 나머지 다른 말 할 겨를 없이 먼저 호유(湖儒)에 언급하였으니 그 선(善)을 좋아하여 마지않는 가륵한 마음은 이미 스스로 볼 수 있었으며 김상호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곧 즐겁게 들으면서 「진실로 그렇다.」 하였은즉 내 자신이 김상호를 사모하는 그것과도 이미 서로 묵계(默契)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러 있어 듣지 못했던 것을 더욱 듣고자 했으나 날이 어느덧 저물어 총총하므로 마침내 기종(騎從)을 번거롭게 하여 돌아오고 말았는데 몇 날이 지나가니 더욱 더 웅망하는 마음을 견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본시 연약한 자질로 게으름까지 더하여 학(學)을 한다 해도 자연 강력하지 못하니 마침내 변화하여 올라갈 수 없는 터이라 이런 처지에서 도를 아는 군자를 만나고 보니 청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한갓 고산경행(高山景行)의 생각만 간절하므로 감히 평생의 뜻한 바를 이와 같이 다 아뢰오니 광(狂)이라 여기어 물리치지를 말아주시면 역시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河西全集 尤菴 序文 誤字 考察

金鎮雄 文正公 都有司

## 1. 序言

河西선생의 文集은 선생이 서거하신 후 8년 만에 문인들에 의해 宣祖 元年 戊辰년(1568)에 初刊本이 진행되었고, 그 후 肅宗12년 丙寅년(1686)에 重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 때 문집 序文은 80高齡이신 尤菴선생께서 쓰셨는데 10여 년의 産苦 끝에 執筆하신 대단한 名 文章이다.

그런데 이 서문이 당시 河西集이나 尤菴集에는 그대로 登載되었으나 그 후 하서선생이 文廟 配享 되신후 純祖2년 戊午(1802)년에 간행된 河西全集의 序文에서는 첫머리의 글자 하나가 原文과 달리 바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글자 하나가 바뀌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 2. 尤菴集 原文 소개

숙종 15년 己巳(1689)년에 尤菴선생이 서거하시고 그 후 遂菴 權尙夏공을 비롯한 그의 문하생들이 선생의 유고를 수습하여 筆寫本으로 처음으로 尤菴遺稿를 만들었다.

그 유고의 眞本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收葬되어 있는데 그 유고에 등재되어 있는 河西集 序를 보면 다음과 같다.(별첨1 참조)

『有一介人自廢其身 而宇宙以爲棟樑 日月免夫晦蒙 其跡愈泯 而其名愈傳 然而人莫如 其所以然也 能言之士 亦不能 以一辭贊 其幽物之妙者 曰故河西金先生(某)也…』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한 節介를 지킨 사람이 있어 스스로 자기의 몸을 버렸지만 宇宙는 그로써 棟樑을 삼고 해와 달은 어둡고 蒙昧함을 免하게 되어 그 발자취가 사라지면 질수록 그 이름은 더욱 더 傳하여지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한다. 말을 잘하는 선비도 역시 한마디 말로써 그 깊숙이 잠긴 妙理를 贊揚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돌아가신 河西 金先生이시다…」

참으로 名 文章이다. 尤菴선생같은 대학자이기에 序頭에 이와 같이 하서선생의 節義를 높이 찬양하면서도 이것을 直說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隱喻적으로 그러나 激烈히 說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유고는 후에 遂菴공에 의해 黃江本으로 출간되었고 또 숙종 43년 丁酉(1717)년에 尤菴集이 간행되었으며 그후 正祖11년 丁未(1787)년에 드디어 宋子大손이 간행되었다.

앞서 말한 필사본으로부터 宋子大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이 河西集 序는 모두 상기한 내용 그대로 간행되어 왔다.(별첨2 참조)

## 3. 河西集 序文 소개

그렇다면 우암선생으로부터 이 서문을 받아다가 바로 간행한 丙寅(1686)년의 하서집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원문을 보면 (별첨3)과 같이 우암집과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하서선생이 문묘에 배향되시고 그 다

음 純祖2년 戊午(1802)년에 간행된 河西全集의 서문에는 「介」자가 「介」자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별첨4 참조)

그리하여 그 뒤 辛鎬烈씨가 번역한 번역본에도 이「介」자로 실려 있고 또 번역도 「介」자로 해석되어 있다. 즉 『有一个人 自廢其身…』 「한 개인이 스스로 자기 몸을 폐기함으로써…」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이「介」자는 數를 셈할 때에 쓰는 글자로서 물건을 셈할 때에는 一은 「한 개」이고 사람을 셈할 때에는 一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한 사람이 있어 스스로 자기몸을 버렸지만…」이라고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몸을 버리기만 하면 모두 다 그를 동량으로 삼고 日月이 어둠을 면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스스로 자기 몸을 버렸다고 누구나 棟樑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志操를 가지고 先王에 대한 節介를 지켜 자기 몸을 버려야만 비로소 그 忠義가 萬古에 빛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河西선생을 동량으로 삼고 日月이 어둠을 면하게 되어 이 나라에 倫理 道德이 바로 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자기 몸을 버렸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綱常이 바로 서는 게 아니고 절개를 지킨 사람이 자기 몸을 버려야만 비로소 忠臣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尤菴선생같은 大 文章家가 십여년 동안 陣痛 끝에 저술한 서문의 첫머리에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폐하였다…」라고 평범하고 條理에 맞지 않는 말을 슬 리가 萬無한 것이다.

#### 4. 「介」로 바뀐 경위 분석

그렇다면 丙寅년 간행된 하서집에는 「介」자로 되어 있었는데 戊午년 간행한 하서전집에는 「介」자로 왜 바뀌게 되었을까를 推定해 보기로 하겠다.

「介」자는 사전에 의하면 32가지의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孟子 盡心 上에 보면 「孟子曰柳下惠不以三公易其介」(孟子 가로되 柳下惠는三公으로써 그 志操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고 그 注에 「介는 操也」라고 되어 있다. 또 楚辭 九章 悲回風에는 「介眇志之所惑兮 竊賦詩之所明」(이 원대한 뜻이 迷惑해지려는 것을 지켜 몰래 詩를 지어 밝히노라)라는 말이 있고 그 注에 「介는 節也」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介는 志操와 節義를 뜻하는 말이니 「介人」이라는 말은 「志操 있는 사람」 또는 「節義를 지킨 사람」이라고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節義를 지킨 사람이 있어 스스로 자기의 몸을 버렸지만…」라고 한다면 하서선생이 을사년 인종이 독살된 이후 모든 관직을 버리고 淳昌에 은거하면서 明宗의 召命에 끝내 不應하고 스스로 자신을 廢人으로 自處하고 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一生을 마치셨으니 이러한 하서선생의 節義를 잘 표현한 문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서전집을 간행하던 당시의 편집자들은 大臣들을 위시하여 모두 당대의 문장가들이며 기라성같은 學者들이어서 한 자 한 文章도 소홀히 넘기지 않고 면밀히 검토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介자가 介자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丁」자의 古字는 사람 人字 밑에 丁자를 한 글자인데 이 丁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한

字典에 의하면 「零丁 ; 뜻 잃어버릴 丁」이란 뜻이 있고, 곧 「失志貌; 뜻 잃은 모습」이라는 주석(註釋)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有一丁人 自廢其身…」즉 「한 뜻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스스로 자기의 몸을 버렸지만…」라고 한다면 河西선생의 당시의 處地가 잘 표현된 것이라 생각된다.

仁宗의 世子時節의 資質로 보아 장차 聖君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인종을 보좌하여 王道정치를 실현해 보려는 웅대한 포부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품었던 큰 뜻을 잃고 살고 싶지 않은 듯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폐하였지만 오히려 이 세상의 큰 기둥이 되어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둠을 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丁人(뜻 잃은 사람)」이 「介人(志操 있는 사람 또는 節義를 지킨 사람)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집 편집자가 丁자의 古字가 글자 모양도 「介」자와 비슷하여 당시 서문의 본문이 잘못 인쇄되지 않았나 오해하고 또 옛날 문장가들은 같은 글자라도 古字를 쓰면 훨씬 품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암선생이 丁자의 古字를 쓴 것으로 생각하고 이 「介」자를 丁자의 古字로 바꾸지 않았나 하고 推定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5. 結言

그런데 출간 할 때에 이 글자가 「丁」자의 古字인 줄을 刻手들이 잘 모르고 「수」인 것으로 誤認하고 「수」자로 새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丁자의 古字는 흔히 쓰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수」자를 잘못 쓴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丁」자의 위로 빠진 부분을 깎아 버려 丁자의 古字

가 아닌 「수」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刻手가 잘못 새긴 것을 아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행 되어 지금껏 그대로 지나쳐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지 않다면 「一介人)(한 절개를 지킨 사람)이라는 말을 「一個人)(한 사람)이라는 평범한 말로 고칠 이유가 萬無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암선생 같은 대문장가가 心血을 기울여 저술한 大賢에 대한 序文이 이렇게 평범하게 「한 사람이 있어…」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할 리가 없으며 또 후대의 全集 편집자들도 우암선생의 글을 이렇게 條理에 맞지 않는 말로 바꾸어 놓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刻手가 丁자의 古字를 「수」자로 잘못 새겼거나 아니면 介자의 획을 잘못 새겨 두 개의 획이 하나가 되어 수자가 되었거나 간에, 이것은 尤菴선생이 저술한 서문과도 분명히 다른 글자가 되어버렸으며 또 이는 하서전집 편집자가 意圖한 「丁」자와도 다른 글자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본다면 당시의 河西全集 편집자의 修正 意圖의 有無를 不問하고 또 刻手의 失手 有無에 無關하게, 尤菴遺稿나 宋子大全에 엄연히 「介」자로 되어 있으니 앞으로 전집의 「수」자를 「介」자로 고쳐 우암선생이 처음 저술한 原狀으로 回復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후학들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니 立言 君子の 高見을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끝

河西集序

有一人自廢其身而宇宙以為棟樑日月免夫晦蒙其跡愈泯而其名愈傳然而人莫知其所以然也能言之士亦不能以一辭贊其幽湧之妙者曰故河西金先生諱麟厚字厚之也先生生於正德庚午七月十九日自能食能言出語作句動驚四座嘉靖庚子以進士登第時仁宗大王毓德春宮中廟專委輔導之任仁廟深知先生道德學問之懿誠心敬禮召對頻仍先生亦以為潛龍之德度越千古異日唐虞之治必臻無疑際遇日益昭融期待日

崑崙2 宋子大全

河西金先生集序

知矣公後幾五十年而其孫景望與其諸子正萬等收拾諸作為若干卷刊行于世余謂公之才固出類而亦幸有遭遇矣世徒知荆玉豐綯之可寶而不歸功於和氏與雷公者非知言者也際逢用救觀之下澣是津宋公序

崑崙1 尤菴題稿 筆寫本

河西先生全集序

有一人自廢其身而宇宙以為棟樑日月免夫晦蒙其跡逾泯而其名逾傳朕而人莫知其所以然也能言之士亦不能以一辭贊其幽湧之妙者曰故河西金先生諱麟厚字厚之也先生生於正德庚午七月十九日自能食能言出語作句動驚四座嘉靖庚子以進士登第時仁宗大王毓德春宮中廟大王專委輔導之任仁廟深知先生道德學問之懿誠心敬禮召對頻仍先生亦以為潛龍之德度越千古異日唐虞之治必臻無疑際遇日益昭融期待日

崑崙4 戊午年刊 河西全集(1802)

河西先生集序

有一人自廢其身而宇宙以為棟樑日月免夫晦蒙其跡逾泯而其名逾傳然而人莫知其所以然也能言之士亦不能以一辭贊其幽湧之妙者曰故河西金先生諱麟厚字厚之也先生生於正德庚午七月十九日自能食能言出語作句動驚四座嘉靖庚子以進士登第時仁宗大王毓德春宮中廟大王專委輔導之任仁廟深知先生道德學問之懿誠心敬禮召對頻仍先生亦以為潛龍之德度越千古異日唐虞之治必臻無疑際遇日益昭融期待日

崑崙3 丙寅年刊 河西集(1686)

##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

고영진 광주대학교 교수

傳統은 새로이 생성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유교의 긍정적인 전통을 찾아내는 작업과 동시에 좋은 전통이 계승될 수 있는 사회적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계승해야지 형식을 계승해서는 안된다. 현대에 맞게 개선해서 전통을 잇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교의 예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다.

예치는 德治와 함께 유교정치의 이상이었다.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동양사회에서 각 나라들은 예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것은 조선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치는 '개인·사회·국가에 대한 예에 의한 다스림'이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

예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가 예교와 예학이다. 예교는 '예의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좀 더 넓게 '유교적 풍속', '유교적 교화' 또는 '유교적 기풍'을 가리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학은 '예의 배움' 즉 예를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이 삼자의 관계는 예치(예의 다스림)가 예교(예의 가르침)와 예학(예의 배움)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조선사회에

서 예는 거의 전 시기를 통해서 중요시되었다. 예가 전사회적으로 중시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성리학적 소양을 강하게 지닌 사람이 등장하면서였다.

이들은 스스로 유교적 생활관습을 시행하고 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증대시켜 나가 16세기 후반에 가면 문장을 주로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 거의 대부분이 예에 관한 글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양란 이후 예가 치국의 방도로 인식되면서 예학 연구는 더욱 심화되고 각 학파의 예학의 차이는 왕실전례를 둘러싼 논쟁으로 표출되었다. 중종대 시작된 왕실전례논쟁은 선조대 흑립·백립논쟁, 광해군대 공빈 추송, 인조대 계운궁 복제와 원종 추송 등을 거치면서 논쟁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갔으며 예송은 그 대립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가 전사회적으로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고 예치의 이념과 구조가 확립되어 갔던 것이다.

고려 말 성리학과 함께 도입된 『소학』과 『주자가례』는 예의 실천의 장을 시간·공간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15세기까지 예의 실천 공간의 중심은 왕실·국가였으며 인간의 삶 전체가 유교적 예의 시행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예의 실천 공간으로서 개인·가정이 중요 시되고 나아가 향촌이 독자적인 실천 공간으로 대두하고 인간의 삶 전체가 예의 시행 대상이 된 것 역시 16세기 이후 사림이 등장하면서였다.

이들이 예치의 모범으로 삼았던 것은 주자의 『의례경전통해』였다. 예를 행하는 주체와 그 실천의 장이 시간·공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책의 구성은 『대학』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체계와도 같다.

따라서 17세기 『의례경전통해』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함께 확립된 예치의 구조도 시간적으로는 인간의 삶 전체와 죽음 이후까지 미치고 공간적으로는 개인에서 향촌·국가, 나아가 천하까지 포괄하면서 각각의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예는 그 자체에 혈연 관계와 신분 관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친친과 존존이 그것이다. 예를 시행하는 주체가 왕이건, 사족이건, 평민이건, 예를 시행하는 장이 가정이건, 향촌이건, 왕실이건 이 두 관계가 착중되어 있다.

단지 일반 사가의 경우 이 두 관계 사이에 괴리가 적고 왕실의 경우는 괴리가 크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치의 중요한 부분을 왕실전례논쟁이 차지하고 그 과정에서 왕례와 사례가 대립과 통합의 과정을 겪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예는 본과 문, 즉 본질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경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치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학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조선시대 예학은 시간이 흐르면서 무게 중심이 한당례→주자가례→

고례로 옮겨갔으며 그 속에서 각 학파가 중시하는 예서도 달랐다.

이이학파의 서인은 『주자가례』 뿐만 아니라 『의례』를 중시하였으며, 이황학파의 영남남인도 『주자가례』와 『의례』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예기』를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서경덕·조식계통의 근기남인은 『예기』, 『주례』 등 고례와 순자의 예설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차이를 바탕으로 예치를 확립해갔다. 예송은 17세기 사회에서 각 학파 내지 봉당들이 나름대로의 학문적 기반 위에서 자신들의 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한 전형적인 '정치형태로서의 전례논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예치는 예의 사회적 기능이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 향촌, 국가의 차원까지 극대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가 농업에서 상공업으로 중심축이 이동해가고 향촌에서 사족의 지배력이 쇠퇴함으로 인해 예의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예치는 더 이상 발전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예는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이라 하였듯이 예는 시와 악이 함께 있을 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어쩌면 조선 중기 예치를 실현한 조선사회가 왜 후기에 가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이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같은 논리로 전통적 예교 속에서 근대시민사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예를 발전적으로 지양하는 데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예치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형태로서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관념적·당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현실적 차원에서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이다. 조선 시대 학인들이 예치를 구현해가면서 가졌던 기본적인 태도, 즉 앎(知)과 삶(行)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노력, 지배층으로서의 덕목인 禮義廉恥를 견지하려고 했던 노력, 차별 위주의 형정보다는 예방 위주의 예약을 더 중시했던 사실, 가족과 사회·국가를 하나의 원칙과 기준 속에서 총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했던 인식 등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절실한 것들이 아닐 수 없다.

본회 상임부회장 金容淑

## 河西先生 天命圖 研究 발간

河西 金麟厚 선생의 天命圖 研究 라는 책이 金容淑씨에 의해 출간 배포되고 있다. 하서 선생은 16세기 우리나라의 큰 성리학자이자 실천적 도학자로서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두루 갖춘 분은 오직 하서 선생님뿐이라는 평가를 받았기에 백대종사(宗師)로 추앙받고 있다.

정조대왕은 하서 선생을 일컬어 우리나라의 주자(周子)라고 하였고, 대학(大學)과 서명(西銘)에 밝아 은미하고 오묘한 학문을 처음으로 발명하였으며 거경직내(居敬直內)의 공부와 도학연원(道學淵源)의 올바름이 실로 우리나라 사문(斯文)의 우두머리라 하면서 문묘에 배향하였다.

특히 하서선생은 우주만물의 생성소멸의 원리와 사단칠정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과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와 천명도(天命圖)를 저작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모두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1549년(하서40세)에 그린 천명도가 1578년 간행된 정추만의 천명도와 천명도해가 실린 책, 능성본에 함께 수록된 것이 근래에 발견되어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 분야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정추만 이퇴계의 천명도와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게 했다.

본 책자를 편술 발간한 14대손 김용숙씨는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하서 선생의 심오한 도학을 더욱 연구하여 빛나게 하여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책을 발간했다고 한다.

**① 2007년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12월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

2007년도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이 12월 21일 10시 30분에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열렸다. 박래호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문묘4배를 올린 후 박종달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박회장은 “4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 주신 회원님들 덕택에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전남북회원이 일치되어 전주에서 학술강연을 대성황리에 마친것이 참으로 기뻐다.”고 회고했다.

이준영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07년도 결산보고를 받고 임원선출에 들어갔다.

박종달 임시의장이 김용숙, 이하영, 안진오, 이문행씨를 전형위원으로 뽑아 회장에 오인균, 부회장에 이근환, 이하영, 신두천, 장원석, 김용숙, 김재수를 추대하여 회원들의 인준을 받았다.

감사에는 이준영, 김종환이 선임되었다. 오인균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량이 부족한 제가 젊은 부회장들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된다.

산양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유림들의 역사적 소명이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해서 선생의 학덕을 세상에 드러낼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용숙 상임부회장이 2008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심의통과시켰다. 광주대학교 고영진교수가 <조선시대 예학의 발전과 예치>라는 주제로 학술 강연을 하였다. <정조대왕

비답문>을 박래호 총무가 낭독하고 총회를 마쳤다. 하서학술재단 김상홍 이사장과 소쇄옹 차종손 양재영씨가 축하화환을 보내왔다.

**② 오인균 회장 초청 본회 임원회의**

**3월 5일 낮 미가식당**

오인균 신임회장 초청 본회 임원회의 및 회식이 3월 5일 낮에 미가식당에서 있었다.

유한상, 박종달, 최상옥, 이영복, 안진오 고문과 김용숙, 이병현, 이준영, 김재수, 박래호, 양희택, 김장수, 이충원, 임원이 참석했다.

박래호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오인균 회장은 “진직 모임을 가졌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하고 임원들이 합심하여 산양회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고, 박종달 회장은 “덕택으로 4년 임기를 마치고 오인균 회장을 모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임기중 못한 것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인사하고 고문들의 참석에 감사드렸다. 안전으로는 양희택 재무의 재정 보고를 받고, 업무 인수 인계가 있었다. 춘향 때에는 학술강연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고재청 전 의원을 초헌관에 초청하기로 했다.

문예기금 200만원 지원을 전남도에 신청하기로 했으며 박종달 전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였다. 이준영 감사에게 교통비를 지급했으나 후원금으로 회사했다.

김용숙 상임부회장, 박래호 총무, 이충원 총무간사, 양희택 재무 등 모든 임원이 유임되었고 신임감사에 김종환 별유사가 선임되었다.

이날 식사는 오인균 회장이 정성껏 대접하여 화기가 넘치는 회식이 되었다.

**③ 5월 9일 임원회의에서  
2008년 사업 논의하다**

본회 임원회의가 5월 9일 19시에 운암동 리젠트 호텔 식당에서 열렸다.

오인균 회장, 박종달 상임고문, 김진웅 문정공 도유사, 신두천, 김용숙, 장원석, 김재수 부회장, 이병현, 박래호총무와 이충현, 김종환 별유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오인균 회장, 김진웅 도유사, 박종달 상임고문의 인사말에 이어 2008년도 상반기 안전에 대한 토의와 심의가 있었다.

본회 활성화 방안으로 신입회원 영입과 회비징수 문제가 토의되었다. 회원 배가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는 오회장의 제안이 있었고, 7년간의 회비납부상황을 점검하여 회원의 성의를 파악하고 2007년도 회비 미납분만을 개별통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150-200명의 정회원을 확보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수의 준회원 제도를 두자는 장원석 부회장의 제안이 논의되었다.

향사시 참례 및 2008년도 상반기 강연회 개최권이 논의되었다. 강연회는 6월 하순경에 광주향교에서 열기로 하고, 강사 선정과 회보 발간을 박래호 총무와 김재수 편집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어서 하서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기타 토의 안건으로는 필암서원과 산양회의 각종 행사에 젊은이들을 적극 참여시켜 교육하고 헌관 선임에도 신중을 기하며 청년 유도회도 참여 적극 참여시키자는 신두천 부회장의 제안이 있었다.

이날 회식은 김진웅 문정공 도유사가 초청하여 대접하였다.

**④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  
200만원 지원받다**

2007년 12월에 본회는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 신청서를 장성균을 거쳐 전라남도에 제출하였다.

지난 7년간의 산양회 활동 내용과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였던 바 본회의 실적을 인정받아 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처음으로 도의 지원을 받았으니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펴나가야겠다.

**⑤ 본회 김진웅 회원**

**文正公 도유사에 피선되다**

본회 김진웅 회원이 文正公 大宗中 都有司에 선임되는 영광을 안았다.

하서 선생 추모 전국 한시 백일장 집행위원장을 맡아온 김진웅 회원이 도유사가 됨으로써 이 고장 유림과 울산 김씨 문중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더구나 2010년 하서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사업을 앞두고 있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① 河西 김인후 선생 숨결 그대로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 ‘원진각’ 개관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인 ‘원진각(元眞閣)’의 준공 및 개관식이 5월 21일 오후 3시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앞에서 울산 김씨 종중대표를 비롯해 유관기관·단체장 및 주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에 개관된 원진각은 지난 1999년에 330㎡ 규모의 유물전시관을 우선 건립한 이후 지난 2007년 2월 증축공사를 착공했으며, 총 26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수장고 및 관리동 102㎡와 휴게실 및 연결 회랑 76㎡, 외삼문 26㎡를 신축한 총 540㎡의 건물 규모로 최첨단 소방시설과 도난방지 시스템을 갖추었다.

유물전시관에서는 지난 4월 4일(재) 양영재단과 하서 학술재단에서 기증한 유물 29종 3,794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으며, 주로 하서선생의 유품으로 국가지정 보물 제587호 노비보를 비롯해 문서와 상징필, 현판, 봉심록, 앞다지 장 등이다.

군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앞으로 42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해 숙박과 선비체험 프로그램

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6백여평 규모의 진덕원, 송의관 등의 교육관을 완공해 명실공히 전통과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선비의 고장으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② 河西 김인후 선생 추모 春享祭

#### 장성 필암서원서 열려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1510~1560) 선생을 기리는 춘향제가 3월 18일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춘향제에는 유한상 성균관 고문, 박종달 필암서원 집강, 정운영 전북 유림 대표, 정창석 경남 유림 대표, 이덕희 충청 유림 대표, 김진웅 울산 김씨 문정공 도유사, 이낙연 국회의원, 이청 장성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춘향제는 제물을 바치는 봉진례, 비단을 바치는 전폐례, 술잔을 바치는 초헌례와 아헌례, 종헌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초헌관에 문경규, 아헌관에 이덕희, 종헌관에 김영철, 진설에 유문수, 집례에 정창석, 대축에 이길영, 김한식, 고재일, 양재영, 최성휴 유림들이 수고했고 김재호씨가 사회를 맡았다.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춘향제가 유림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초헌관을 맡은 문경규 전 담양군수는 제를 마친 뒤 서원 내 청절당에서 ‘하서 선생과 가사문학’을 주제로 강론했다.

문 전 군수는 “하서 선생은 도학과 절의, 문장을 겸비한 호남의 큰 선비”라며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 많은 제자를 길렀는데 가사문학의 일인자인 송강 정철도 그의 문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송강 선생은 인본주의를 주창한 하서 선생의 가르침을 좇아 독특한 문체와 표현 기법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며 그중 ‘훈민가’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일깨워 준 하서 선생의 사상이 잘 녹아 있다”고 강조했다.

**③ 필암서원을 받들어 살펴보니...**

**제 6회 河西선생 추모 한시백일장...**

**이창우씨 장원**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 1510~1560) 선생을 기리는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이 5월 6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열렸다.

이 날 백일장에는 전국각지에서 전국 유림과 한시동우인 등 150여명이 참가해 대회 시제(詩題) ‘봉심필암서원(奉審筆巖書院), 압운(押韻)은 양(陽), 장(長), 강(綱), 향(鄉), 양(揚)을 놓고 기량을 겨뤘다.

올해에도 안대환 서울유림대표, 서정민 부산유림대표, 손자용 경북 유림대표 등 전국 유림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하서선생의 학문이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백일장 장원은 대구 출신의 이창우(73)씨가 차지해 상금 100만원과 상장을 받았으며, 차상(次上)에는 김석환(울산) 손자용(경북 영천시) 씨 등 2명이, 차하(次下)에는 손창현(대구) 안정영(부산) 김용락(대구) 씨 등 3명이 뽑혔다.

정원시

奉審筆巖書院

(필암서원을 받들어 살펴보다)

筆巖院謁參秋陽 咳唾如廳景慕長

필암서원 보리익을 때 절하니,

기침소리 들린듯하여 공경하는 마음 길고 길어

卓瑩文章千古鑑 清高節義萬年綱

높디란 문장을 천고의 거울이요,

맑은 절의는 만년의 기강일세

洛民脈絡繼承地 洙泗淵源傳授鄉

낙민의 학맥을 이어받은 지역이요,

수사의 연원이 전수된 고을일세

懿蹟英名誰不仰 遺芳百世瑩永宣揚

아름다운 유적과 명성을 누가 우러르지 않을손가,

남기신 향기 천백세에 길이길이 선양하리라

#### ④ 河西先生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

##### 문중 준비위 발족, 사업계획안 마련중

공동위원장에 김진웅도유사, 김달수 대총회장  
河西先生 탄신 5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문중 준비위원회가 2007년 8월 28일 김택수(문정공도유사) 김재수, 김병국, 김성, 김상윤, 김병기 등이 모여 광주준비위원회를 발기하였다.

위원장에는 김택수 도유사, 실행위원장에 김재수 교수, 기획에 김성, 조직에 김상윤 이사, 재정에 김병기 교수를 맡기고 각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위원을 두기로 했다.

이후 2주마다 정기모임을 갖고 계획을 추진했다. 김덕진, 안동교 교수, 박명희 박사 등 젊은 학자들과 박래호, 양재영, 이동호, 김진석, 김양수, 조상열, 김원규, 등이 모여 사업계획안을 계속 논의해 왔다.

김진웅신임 도유사가 선임됨에 따라 준비위원장으로서 추대하고 2008년 4월에 각계에 계획안을 설명할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대외 교섭과 홍보에 나섰다.

김양수 전 전남도지사 비서관을 대외교섭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후 김달수 대총회장, 김정수 전 대총회장, 김성수서울 종친회장, 김인수 광주 종친회장 및 서울 종친들과 여러차례 의견을 조율하면서 일을 진행했다.

지난 5월 21일 하서유물전시관인 元眞閣개관식을 미친후 淸節堂에서 김진웅 도유사, 김달수 대총회장, 김상표, 김용숙 산양회부회장, 김인수 광주 종친회장, 김재익(하서학술재단), 김재

수, 김상윤, 김원규 등이 모여 협의한 결과 김진웅 도유사와 김달수 대총회장이 문중준비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면 김상홍, 김상하, 김노수 회장을 비롯한 서울의 원로 종친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을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이후 김진웅 도유사와 네 차례 협의를 거쳐 광주준비위에서 마련한 계획안과 도유사가 제시한 안을 검토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여 하서학술재단에 보내고, 학술재단의 안을 받아들여 최종안을 마련한 후 장성군에 접수하기로 했다.

#### ⑤ 「하서 김인후선생 이야기」

##### 독후감 시상식

「하서 김인후선생 이야기」독후감 시상식이 2007년 12월 15일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에서는 광주 정광고 서안나양이 ‘하서 그를 만나다’ 라는 제목의 글로 대상을 받았다. 또 광주 문흥중 장윤성 군등 5명이 최우수상, 전남여상 이은서양 등 21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 책은 문정공 도유사인 김택수씨가 자비로 4000천여권을 퍼내어 광주·전남·장성 청소년들에게 배포하여 읽게 하였다. 지은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했던 시인 김병효씨이다.

#### ⑥ 필암서원 도서목록 정리

2008년 6월 29일 집강 박래호, 이충원, 총무 김진오, 별유사 김종환은 필암서원 도서목록을 정리하였다. 문집류가 203점 607권, 참고문헌이 172점 209권, 계 375점 816권이였다.

## 山仰會員 동정

- 金鎮雄 : 文正公 都有司
- 宋俊彬 부회장 : 남간사 도유사
- 김용숙 상임고문 : 文正公 부도유사
- 본회 총무 박래호는 필암서원 선비학당에서 월요반(대표 金相沃) 화요반(대표 朴基玉) 수요반 (대표 吳昌均) 등 30명에게 명심보감, 中庸, 小學을 강의한다. 오후에는 봉암서원에서 전주대학교 사범대 한문교육과 학생 19명(회장 배상민)에게 소학과 논어를 강의한다.

## 入會를 환영합니다

光州	東區 李炫浩	全南	長城 金兩洙
	南區 金炳鴻		長城 金碩基
	西區 朴俊圭		羅州 李材珉
			潭陽 林魯德

##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 드립니다.

姓 名	金 額
(주)삼양사	2,000,000원
전남도청문예지원금	2,000,000원
산양회부회장 金粹洙	200,000원
산양회감사 李準泳	50,000원
崔相玉 고문(南和土建)	1,000,000원
金鍾桓 부회장	100,000원

### ● 유물전시관 개관 축하 화환

1. 필암서원 산양회장 오인균
2. 울산김씨 밀등회원 일동
3. 울산김씨 장성군 종친회
4. 울산김씨 문정공 맥동파 문중
5. 울산김씨 청송회
6. 장성문화원장 김영풍
7. 재경 장성군 향우회장 정진성
8.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도유사 김진웅
9. 울산김씨 광주지역 종친회 회장 김인수
10. 곡성영귀서원 도유사 양동하
11. 양영·하서재단 이사장 김상홍
12. 울산김씨 대종회 회장 김달수
13. 학교법인 서강학원 이사장 김상우
14. 울산김씨 문정친목회
15. 장성군 사회단체 친목회 회장 김상표
16. 울산김씨 각제공파
17. 장성군청산하 울산김씨 공직자 일동
18. 울산김씨 수연 종무회 회장 김을수
19. 울산김씨 장산문중 김창수
20. 울산김씨 회암공파 종친일동
21. (주)대상테크 대표이사 정재용
22. 울산김씨 종파종친회 일동
23. 필암서원 임원일동
24. 울산김씨 화산공파종친일동
25. 울산김씨 월평파 종친일동
26. 울산김씨 담양종친회 회장 김종갑
27. 농촌공사 장성지사장 손충길

### ● 화분

1. 농협군지부장 박광호
2. 광주고등학교 3회 동창회일동

## 山仰會 임원

고문	柳漢相 閔祐植 崔相玉 李永福 安晋吾 鄭雲炎 金老洙 金宅洙 金鍾燮 金 英
상임고문	松石朴鍾燮 素巖 金容淑
會長	鰲山 吳仁均
부회장	然哉 李昆煥(대구) 愚公 宋俊彬(충청) 海松 申斗千(전남) 紹强 李夏永(전주) 槿菴 張源碩(광주) 好然 金梓洙 丹軒 金鍾桓(별유사)
총무	蘆江 朴來鎬
총무간사	栢陽 李忠源
재무	平齋 梁熙澤
감사	誠軒 李準泳 金鍾桓
지역간사	鳳耕 羅天柱 晚松 申文秀 完齋 尹柱男 葛川 李世煥
책임연구원	道學: 吳鍾逸 朴來鎬 節義: 金鎮雄 文藝: 李炳珪 金梓洙 金長洙
회보 편집위원	주간 金梓洙 위원 李炳珪 朴來鎬 金長洙 金東河

## 筆巖書院 山仰會員 住所錄

### 경기 서울 대구 부산

(姓名, 本貫, 雅號, 住所, 電話番號)

- 許鎬九 金海, 重山, 서울 성북구 정능 4동 대우아파트 120동 1404호 ㉠ 02-912-4733, 011-9894-4733
- 李昆煥 仁川, 然哉,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789 부영아파트 506동 203호 ㉠ 053-321-4717, 011-9570-3717
- 金相元 蔚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현대아파트 807-104호 ㉠ 031-708-3910
- 金燿中 蔚山, 대전시 서구 삼천동 가람아파트 9동 1302호 ㉠ 042-482-0556, 011-609-7784
- 邊瑠燮 黃州, 元谷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9-9 ㉠ 02-3442-0220, 016-342-2288
- 田光弘 潭陽,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외사리 ㉠ 031-633-2723, 011-9654-2723
- 金鎮雄 蔚山, 晚巖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현대아파트 110-2003 ㉠ 051-265-4237, 011-565-4237
- 宋東憲 恩津, 대전시 동구 용운동 258, ㉠ 042-284-0161
- 金相燁 蔚山,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 4동 94-28 현대맨손 1동 201호, ㉠ 02-3481-8436, 02-2243-5975
- 金老洙 蔚山, 慕巖,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26 ㉠ 02-713-8127, 017-713-8127
- 金煥根 義城, 一剛,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29-385 ㉠ 051-971-3309, 017-571-1960
- 高麟作 濟州, 仁谷,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548 ㉠ 051-783-5924, 011-835-5924

- **金熙明** 光山, 誠菴, 부산시 해운대구 우일동 637-4 24통 21반 ㉠ 017-560-4586
- **金成勳** 光山, 月浦, 서울 강남구 삼성동 64-9, 성우빌라 503호 ㉠ 02-549-7878
- **金在億** 蔚山, 三羊,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63 삼양사 ㉠ 02-740-7012, 011-302-7012
- **鄭亮元** 草溪, 至愚堂, 경기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현대성우아파트 813-1004 ㉠ 031-261-3193, 016-594-3103
- **宋賢復** 淸州, 湖亭, 경남 김해시 어방동 동원아파트 502동 903호 ㉠ 055-328-9315, 017-575-4457
- **姜麟茲** 晉州, 于堂,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902 ㉠ 055-82-5259
- **宋台復** 淸州, 晚悟, 경남 김해시 삼방동 690-1 동원아파트 105동 406호 ㉠ 055-334-0045, 011-9720-0378
- **민방식**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진달래아파트 103동 209호 ㉠ 031-451-2595
- **張玄武** 仁同, 春坡, 경남 하동군 악량면 축지리 319, ㉠ 055-883-3673, 011-9522-3673
- **金正國** 慶州, 白啞, 경북 경주시 황남동 297 ㉠ 045-772-3898, 010-2878-3898
- **孫寧達** 慶州, 경북 경주시 황남동 317-10 ㉠ 054-749-6708, 010-5521-6708
- **金兌桓** 瑞興, 守, 부산시 금정구 부곡2동 235-5 우신뉴타운 101동 403호, 051-518-6242, 019-527-6242
- **宋俊彬** 恩津, 愚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51-1 현대아파트 103-902호 ㉠ 042-221-3377, 011-9772-0668
- **김상홍** 울산,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63 삼양사
- **김상하** 울산,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63 삼양사

## 전북

- **李世煥** 固城, 葛川,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393-1 갈천서원 ㉠ 063-285-7755, 011-670-7855
- **鄭雲炎** 迎日, 斗下, 전주시 덕진구 진북 2동 1060-8 현대아파트 1001호 ㉠ 063-272-3900, 018-285-3900
- **金鳳洙** 蔚山,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3-46 ㉠ 063-274-3821
- **劉一鍾** 江陵, 河南, 정주시 상동 283-11 ㉠ 063-535-3497, 011-9923-3497
- **金炳閔** 蔚山, 愚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현대아파트 102-503 ㉠ 063-223-9729
- **安在格** 順興, 行山,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421-5 ㉠ 063-285-3389, 017-606-3389
- **林東翼** 羅州, 雲湖,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705-6 광진궁전아파트 7-1201 ㉠ 063-224-6697, 019-489-6697
- **金鍾燮** 蔚山, 中軒,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8 현대아파트 105-206 ㉠ 063-221-4592
- **申文秀** 高靈 晚松, 月汀,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61-1, 월정서예학원 ㉠ 063-282-4427, 016-627-4427
- **金彭洙** 蔚山, 莘浩,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거성그린아파트 2-1201 ㉠ 063-230-0160, 011-681-0160
- **楊萬鼎** 南原, 玄谷,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서호아파트 101동 205호 ㉠ 063-288-3646, 063-274-7995
- **金載元** 蔚山,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삼태 ㉠ 063-267-6645
- **吳鍾逸** 同福, 臥龍, 전북 전주시 완주군 효자

동 3가 전주대 학교 ㉠ 063-220-2303

- 金炳崙 蔚山,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317 ㉠ 063-232-0626, 011-678-2051
- 金炳寬 蔚山, 安松, 순창군 팔덕면 장안리 537 ㉠ 063-652-5180
- 安泰錫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83-29
- 李康善 全州, 賢庵,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8 현대아파트 106동 809호 ㉠ 063-222-5921
- 金仁煥 慶州, 전북 정주시 연지동 350 ㉠ 019-686-3977
- 高永莢 長興, 后石, 전북 부안군 주산면 소산리 463 ㉠ 063-582-6386, 011-9951-1360
- 吳龍根 羅州, 錦峰, 전북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 296 ㉠ 063-626-0216
- 李夏永 全義, 紹强,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지킴빌 107동 1101호 ㉠ 063-282-7608, 011-9640-7608

### 전남 타군

- 金炳椽 蔚山,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309 ㉠ 061-382-8619
- 趙鏞敏 咸安, 雲菴,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마골 ㉠ 062-222-6474, 061-337-8850
- 朴文鎬 보성군 별교읍
- 吳翼星 곡성군 고달면
- 丁宗杓 羅州, 慕蓮,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568 ㉠ 061-363-3715
- 吳永在 전남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579
- 金吉雄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 金正泰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107-1
- 李雲休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 金鎭圭 곡성군 옥과면 금외리 537

- 高在萬 전남 구례군
- 허중남 전남 곡성군 겸면 가정리 영귀서원
- 金鍾甲 전남 담양군 도촌리 146-2
- 朴弘淳 전남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559
- 崔泰均 전남 나주시 송월동 137
- 朴性學 珍原, 전남 보성군 겸백면 사곡리 422 ㉠ 061-853-2267, 011-749-0267
- 李泳福 公州, 雲亭, 전남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197-16 ㉠ 062-228-9657
- 朴奇鎬 密陽, 又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 061-373-0518
- 梁亨根 濟州, 春坡,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787 ㉠ 061-382-7138
- 梁仲鎬 濟州,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79 ㉠ 061-382-7588
- 廉東玉 坡州, 梅山, 전남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428 ㉠ 061-852-5345, 010-9939-5345
- 安泰淳 竹山, 述軒, 전남 보성군 북내면 북내리 242 ㉠ 061-853-9931
- 廉喆浩 坡州, 勤軒, 전남 보성군 문덕면 양동리 ㉠ 061-853-5679
- 金圭琛 商山, 纈亨, 전남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854 ㉠ 061-322-8373, 016-603-8373
- 蔡吉三 平康, 南泉, 전남 보성군 북내면 용동리 510
- 愼喜範 居昌, 月山, 전남 영암군 덕진면 운암리 718 ㉠ 061-473-3697, 010-2002-3697
- 鄭得采 河東, 梧鳳,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53-3 ㉠ 061-362-5175, 011-9623-5175
- 李材珉 星主, 忍齊,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65-10 ㉠ 061-331-5111, 011-9432-5011
- 宋鍾默, 南陽, 晚松, 전남 고흥군 동강면 매곡

- 리 780, 061-833-2123, 011-9430-0245
- 高光宣 友松, 전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48, ① 061-382-7808
- 尹泳烽 南海, 海亭, 전남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① 061-432-0079, 011-9609-2088
- 曹相鎬 昌寧, 心松, 전남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315 ① 061-383-0534, 016-778-0534
- 朴文洙 密陽, 月潭, 전남 담양군 주산리 주평, ① 061-382-3227, 011-609-3228
- 柳晏重 文化, 春溪,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 1리 절산, 062-952-6708, 017-618-6709
- 朴成鎬 전남 담양군 대전면
- 朴炯梓 珍原, 旻山, 전남 순천시 장천동 22-42 10통 3반 ① 061-744-8630, 011-9614-8633
- 朴淙柱 珍原, 晚堂, 전남 순천시 장천동 70-4 ① 061-745-5717, 011-644-2986
- 任亨模 長興, 전남 보성군 검백면 룡산리 ① 061-853-6256, 011-603-4807
- 高祐錫 長興, 松原,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① 011-9608-8404
- 曹仁鎭 昌寧, 蘇潭, 전남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184 ① 011-610-8020
- 李汶行 咸平, 松谷, 전남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928 ① 061-322-8000, 010-5613-8000
- 金柱煥 金海, 玄堂, 전남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2-1 ① 061-322-0551, 011-627-0552
- 鄭鍾仁 羅州, 春谷, 전남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① 061-322-8282, 061-644-8288
- 盧廣燮 光州, 深山,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306-1 ① 061-322-8345, 011-640-8345
- 李辰行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① 061-322-3426
- 任根亨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월장리 507-3
- 宋禧鎭 전남 담양군 남면 만월리 47-1
- 金載洪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468
- 文在國 전남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624
- 李文甲 전남 장흥군 관산면 옥당1리
- 朴元澤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80-1
- 宣炳國 전남 보성군 문덕면 동산리
- 張璉燮 전남 함평군 함평읍 울랑리 546
- 金炳國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28-4
- 韓永弘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450-2
- 林魯德 전남 담양군 대전면 병풍리 78-1 ① 011-617-1808

#### 장성군

- 李相鏞 慶州, 碧松,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① 061-392-0436, 017-602-0436
- 李沂錫 光山, 栢軒, 장성군 장성읍 청운2동 120-11 ① 061-393-2008, 011-627-1856
- 金炳孝 蔚山, 東岩,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172 ① 061-393-8248, 016-9810-8248
- 金炳三 蔚山, 善齋,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필암 ① 061-394-0833
- 金相述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16 ① 061-393-8103, 016-4850-0625
- 金鎔普 蔚山, 栗亭, 장성군 진원면 울곡리 61 ① 061-392-5222, 019-692-5222
- 金相杓 蔚山 加平 장성군 진원면 학전리 평촌 ① 061-392-5115, 011-9625-9666
- 林基玉 兆陽, 南隱, 장성군 남면 월곡리 741 061-392-3602
- 金麟奎 蔚山, 栢堂, 광주시 북구 중흥2동 모아 아파트 102동 803호 ① 011-638-4394

- 金容益 蔚山, 東隱,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429 ㉠ 061-392-7621, 019-9160-7621
- 金南圭 蔚山, 愚耕,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172
- 金在洙 晋州, 貞軒,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115 ㉠ 061-394-2242
- 奇宇天 幸州, 松隱堂,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720 ㉠ 061-394-2808
- 邊東焱 黃州,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19 ㉠ 011-666-8113
- 劉載述 江陵, 蘆松,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061-392-8987
- 李載洙 咸平, 鶴圓,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368 ㉠ 061-394-2306
- 金福源 商山, 湖隱,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108 ㉠ 061-394-1969, 011-219-1969
- 金採林 金海, 淸蓮堂,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235 ㉠ 061-392-6365, 016-255-6978
- 宣在奕 宝城, 笑巖, 장성군 남면 녹진리 338 ㉠ 061-394-3934, 019-9146-3934
- 劉載善 江陵, 林阜,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491 ㉠ 061-394-4820, 019-640-4820
- 邊東銘 黃州, 虎巖, 장성군 북이면 박산리 405 ㉠ 061-393-1157
- 金漢植 光山, 愼菴,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동계 ㉠ 061-393-5149
- 金相德 蔚山,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중평 ㉠ 061-392-7511
- 梁熙澤 南原, 平齋,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43 ㉠ 061-393-5874, 016-9646-5838
- 李準泳 慶州, 誠軒,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129-5 ㉠ 061-395-0755, 010-4633-1311
- 金炳瑄 전남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581
- 奉炳國 전남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 金道今 전남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359
- 金在植 光山, 錦齋, 전남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357 ㉠ 061-393-4770
- 奉祥九 河陰, 雲史, 전남 장성군 장성읍 삼월동 1329 ㉠ 061-393-2188, 019-693-2188
- 金炳倫 蔚山, 京巖,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514 ㉠ 061-392-6950, 011-643-8964
- 金應烈 晋州, 漁雲,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80 ㉠ 061-394-1937
- 金相沃 蔚山,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10 ㉠ 061-394-6768, 016-654-6744
- 朴英洙 密陽,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687 ㉠ 061-393-4207, 019-9742-4207
- 朴泰統 珍原,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31 ㉠ 061-392-5451, 016-601-5451
- 金炳坤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83 ㉠ 061-394-1272, 018-410-3978
- 林載珩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142
- 邊日燮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28-7
- 龔雋基 전남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 柳壽煥 전남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218
- 金相元 蔚山, 太巖,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73-17 층무2동 ㉠ 061-392-2804, 019-618-2804
- 朴來鎬 泰仁, 蘆江,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70-11 층무2동 ㉠ 062-232-6353, 061-393-8880
- 金相基 蔚山,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남계 ㉠ 061-392-5151, 017-650-5721
- 羅天柱 錦城, 鳳耕,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 061-394-2315, 016-684-2315
- 李忠源 光山, 栢楊,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57-3 ㉠ 061-392-6500, 011-627-1057

- **李炳玄** 光山, 淸下, 장성군 장성읍 청운1동 ㉠  
061-392-1407, 011-9440-1401
- **金縑** 蔚山,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630-2
- **邊東森** 黃州, 장성군 북일면 오산리 218 ㉠  
061-393-1362
- **邊炳淵** 黃州, 强庵,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  
061-393-1141, 011-615-5595
- **金泳豊** 蔚山, 白松,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임  
곡부락 ㉠ 062-651-7447, 011-645-7445
- **金盛洙** 蔚山, 牧井, 장성군 장성읍 청운 1동  
축협장 ㉠ 061-393-6771, 061-393-2316
- **崔南周** 全州,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25-4 ㉠  
061-393-5598, 018-612-0574
- **高光玉** 長興, 牛峰,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  
061-394-2079
- **朴來說**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 **金昌洙** 光山, 和堂, 전남 장성군 동화면 동호  
2리, ㉠ 061-393-5151
- **黃龍植** 長水, 喜濟,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  
리 98 ㉠ 061-393-6675, 011-633-6675
- **高在鎰** 長興,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흥리  
664 ㉠ 394-5800, 011-9995-0401
- **徐京澤** 利川, 中元,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  
2리 393-3235, 011-347-0078
- **金炳俊** 蔚山,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257-3 ㉠ 393-9840, 011-211-9323
- **高在根** 長興,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87-18 ㉠ 393-2642, 010-2658-2642
- **金碩基** 商山, 桂村,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  
리 163-2 ㉠ 393-3937, 010-4513-3937
- **金兩洙** 蔚山,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부  
강2차아파트 506호 ㉠ 394-6348, 010-  
8899-6348

## 광주시 동구

- **朴景來** 珍原, 緣洋, 광주시 동구 금남로 중앙  
초등학교 옆 녹양서예원 ㉠ 062-223-2266
- **崔相玉** 全州, 裕堂, 광주시 동구 동명동 58 ㉠  
062-222-1357, 062-527-8818
- **崔基洪** 慶州, 金沙, 광주시 동구 충수동 8-7  
㉠ 062-223-0135
- **安晉吾** 竹山, 次山, 광주시 동구 산수동 463-  
19 동진맨션 3- 103 ㉠ 062-512-7475
- **南兌龍** 宜寧, 松泉, 광주시 동구 동명동 102-  
1 ㉠ 062-227-6703, 062-227-4904
- **姜大旭** 晋州, 竹灘, 광주시 동구 학동 721 무  
등파크맨션 3동 301호 ㉠ 062-222-7571,  
016-624-7571
- **金長洙** 善山, 晨溪, 광주시 동구 지산 1동  
342-52 ㉠ 062-232-5577, 061-622-5577
- **趙炳春** 金堤, 愚溪, 광주시 동구 동명동 200-  
16 ㉠ 017-603-4090
- **金相憲** 蔚山 德齊, 광주시 동구 산수2동 534-  
21 ㉠ 062-263-5216, 011-9620-5216
- **李圭珩** 全州, 松坡, 광주시 동구 소태동 573-  
25 ㉠ 062-223-5480, 062-222-3130
- **張斗錫** 興德, 海觀, 광주시 동구 지산동 713-  
58 ㉠ 062-227-9004, 224-6364
- **정승호** 경주, 광주시 동구 전남경찰청 공보  
실 동아일보취재본부 ㉠ 062-671-7733,  
011-232-0525
- **張源碩** 興德, 槿庵, 광주시 동구 윤림동 583  
라인아파트 101동 303호
- **閔麻植** 광주시 동구 지산동 삼성아파트 3동  
1301호
- **梁海根** 玉井, 광주시 동구 학동 633-8
- **金鍾灝** 金海, 南松, 광주시 동구 용산동

636-31 한국아파트 101-1509호

- 姜大燦 光주시 동구 운림동
- 李炫浩 全州, 甘泉, 光주시 동구 금남로5가 163-1 ㉠ 062-227-0300, 011-473-0300

### 광주시 서구

- 曹基元 昌寧, 東川, 光주시 서구 양동 60-2 금호맨션 2- 111 ㉠ 062-369-8816, 017-603-8816
- 金秉學 商山, 蓮谷, 光주시 서구 화정 1동 중흥파크 아파트 1-108호 ㉠ 062-365-2199, 016-686-2199
- 尹淙根 驪州, 義齊, 光주시 서구 양동 60-2 금호맨션 3-805 ㉠ 062-366-4311, 017-627-7008
- 尹漳鉉 海南, 一沙, 光주시 서구 금호동 769 모아 아파트 104-306 ㉠ 062-373-5356, 016-658-5357
- 姜仲錫 晉州, 梅亭, 光주시 서구 상무 2동 432- 15 ㉠ 062-371-0108, 017-609-0108
- 李啓善 咸平, 福山, 光주시 서구 화정 3동 917-8 ㉠ 062-228-2106, 062-374-4190
- 奇世樂 幸州, 滿齋, 光주시 서구 화정 4동 금호 타운 104-102 ㉠ 062-375-4348, 011-609-6965
- 李汀圭 星州, 靑坡, 光주시 서구 금호동 89 호 반리젠시빌 507-405호 ㉠ 011-628-1372
- 柳鍾相 高興, 玄供, 光주시 서구 화정동 신동아아파트 103-85 ㉠ 062-365-3287, 011-9865-3930
- 鄭尙允 光州, 源齋, 光주시 서구 상무 1동 155 현대아파트 109동 901호 ㉠ 062-372-0889, 011-624-0277

- 曹相烈 昌寧, 厚堂, 光주시 서구 쌍촌동 우미아트빌 205동 901호 ㉠ 062-372-7070, 016-606-5600
- 金相德 蔚山, 光주시 서구 쌍촌동 155 현대아파트 102 - 602 ㉠ 062-381-7799
- 李載英 咸平, 竹山, 光주시 서구 쌍촌동 1동 328-23
- 金炳謹 蔚山, 仁松, 光주시 서구 화정 1동 현대아파트 103-705 ㉠ 062-373-2599, 011-600-2599
- 朴竣圭 務安, 南畊, 光주시 서구 금호동 805 남양아파트 105-1002 ㉠ 062-655-1626, 011-616-5634

### 광주시 북구

- 金宅洙 蔚山, 嘉山, 光주시 북구 운암동 441-9 ㉠ 062-523-7992, 011-636-7992
- 奇雲燮 幸州, 惺菴, 光주시 북구 각하동 471 금호 3- 606 ㉠ 062-263-8054, 016-686-8054
- 金炳大 蔚山, 芝村, 光주시 북구 용봉동 973-1 삼성아파트 6-1702 ㉠ 062-574-4928
- 梁海弼 南原, 光주시 북구 우산동 231-1 ㉠ 062-264-0145, 016-9601-0154
- 孔庚鎬 曲阜, 皓隱, 光주시 북구 용봉동 1074-8 현대아파트 102동 1406호 ㉠ 062-512-1779, 018-610-187
- 安東敎 竹山, 光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철학연구소 ㉠ 062-376-5254
- 李洪柱 全州, 顧菴, 光주시 북구 오치동 981-7 고운아파트 3차 103-401 ㉠ 062-529-1314, 018-602-4773
- 金동하 연운, 光주시 북구 각하동 금호타운

- 1-706 ㉠ 062-520-5055, 011-9609-4334
- 朴東圭 密陽, 松圃, 광주시 북구 중흥 1동 746-16 ㉠ 062-523-7731
  - 崔炳植 隋城, 興山, 광주시 북구 운암동 483-29 ㉠ 062-525-3800, 010-9899-3802
  - 柳漢相 文化 東江, 광주시 북구 우산동 559-74 ㉠ 062-529-1197
  - 金鎭云 蔚山, 木亭,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우미 1차 아파트 101-803 062-521-8568
  - 朴鎭龍 順天, 素田, 광주시 북구 각하동 471 금호 타운 12-903 ㉠ 019-628-8568, 062-672-7009
  - 金鏞植 光山, 春溪, 광주시 북구 중흥동 1동 687-11 ㉠ 016-642-9575, 062-512-6372
  - 宋嘻鎭 洪州, 性齋, 광주시 북구 운암동 1114 ㉠ 062-513-3961, 011-649-0134
  - 金榛洙 蔚山, 광주시 북구 삼각동 507-5 ㉠ 016-603-2939
  - 金文珍 蔚山, 南松, 광주시 북구 신안동 482-29 ㉠ 062-528-7001, 062-521-2228
  - 金官中 蔚山, 광주시 북구 풍향동 23-93 금성맨션 703 ㉠ 011-606-9699
  - 金昌洙 蔚山, 峴松, 광주시 북구 운암동 동일 아파트 1805호 ㉠ 062-521-0371, 019-616-0372
  - 金鎭午 蔚山, 星谷, 광주시 북구 운암동 삼호 아파트 1동 204호 ㉠ 062-524-6379
  - 金寅洙 蔚山,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우미3차아파트 302동 303호 ㉠ 062-524-9766, 016-779-9766
  - 吳炳祚 羅州, 省齋, 광주시 북구 임동 92-83 바르게살기운동광주광역시협의회 ㉠ 062-571-1855, 011-636-5299
  - 金靈洙 蔚山, 광주시 북구 매곡동 83-1 호타운 105-706 ㉠ 061-393-2874, 019-373-8235
  - 金相燾 蔚山, 鮮山, 광주시 북구 운암동 삼호 아파트 1동 307호 ㉠ 062-521-2702, 019-345-2702
  - 孔炳哲 曲阜, 林泉, 광주시 북구 중흥동 642-2 ㉠ 062-522-5100, 011-624-0030
  - 朴鍾達 忠州, 松石, 광주시 북구 우산동 631-1 현대아파트 105동 403호 ㉠ 062-262-1779, 011-361-6779
  - 閔京鎬 驪興, 龍池, 광주시 북구 문흥동 대주 아파트 101동 312호 ㉠ 062-266-8961
  - 金在俊 蔚山, 淸軒, 광주시 북구 운암동 남일 맨션 205호 ㉠ 062-523-5286, 016-752-5286
  - 金滿奎 蔚山, 講齊, 광주시 북구 누문동 144-7 ㉠ 062-525-0247, 011-606-0247
  - 金炳定 蔚山, 隱松, 광주시 북구 운암동 92-3 ㉠ 062-529-7629, 019-9166-6345
  - 金乙洙 蔚山, 遜雲, 광주시 북구 두암 2동 600-3 ㉠ 062-265-3650, 011-620-0900
  - 金鍾桓 蔚山, 丹軒, 광주시 북구 임동 92-123 ㉠ 062-512-3003, 016-603-0070

#### 광주시 광산구

- 金相垠 蔚山, 淸菴,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주공 3단지 305동 104호 ㉠ 062-951-4536, 010-6455-7595
- 李泳鎬 全州, 淸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793-7 ㉠ 062-944-0135, 011-605-8382
- 金東朝 光주시 光산구 우산동 주공아파트 101동 206호

- **金商順** 慶州, 復初,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631-3 ㉠ 062-944-2394
- **孔鍊雄** 曲阜, 瑞山,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757-5 모아아파트 102동 702호
- **이동명**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학교 법학과
- **崔成休**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924-5 ㉠ 062-951-1743, 019-601-0540
- **梁哲承** 濟州, 松齋,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536-9 보라아파트 1006 ㉠ 062-941-9805
- **李漢秀** 全義, 義松,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320-1 ㉠ 062-952-8873, 011-9613-9496

#### 광주시 남구

- **梁會亨** 濟州, 石俸, 광주시 남구 월산 5동 1012-38 ㉠ 062-367-0080, 017-603-9353
- **金炳郁** 蔚山, 광주시 남구 방림동 삼일아파트 11동 103호 ㉠ 062-651-3233
- **羅性洙** 羅州, 道川, 광주시 남구 월산 4동 907-9 ㉠ 062-369-234
- **吳仁均** 羅州, 鰲山, 광주시 남구 진월동 536 대주파크빌아파트 102-901호 ㉠ 062-672-7008, 011-618-0005
- **金杜洙** 善山, 松隱, 광주시 남구 월산4동 982-5 ㉠ 062-363-6023
- **河應善** 晉州, 松岩, 광주시 남구 월산5동 1018-2 ㉠ 062-364-4262, 011-279-6441
- **庾東均** 茂松, 海史, 광주시 남구 봉선 2동 삼익아파트 204동 1006호 ㉠ 062-672-4422, 017-601-4422
- **梁在東** 濟州, 松雲, 광주시 남구 백운동 451-14 ㉠ 016-652-2887, 062-671-4199
- **金梓洙** 蔚山, 好然, 광주시 남구 진월동 392 (교수)하늘연가아파트 102-901호 ㉠ 062-653-6395, 016-705-6395
- **金容淑** 蔚山, 素巖, 광주시 남구 진월동 풍림 A 101-608 ㉠ 011-603-5724
- **申斗千** 平山, 海松, 광주시 남구 진월동 132-7 광명 아파트 102동 1204호 ㉠ 062-676-8752, 018-642-7968
- **金永達** 淸州, 翠松, 광주시 남구 봉선동 502 라인아파트 101동 1007호 ㉠ 011-626-5818
- **朴泰根** 陰城, 西山, 광주시 남구 진월동 514-22 한국이텔리움102동1702호 ㉠ 062-941-2911, 011-603-1252
- **金勝圭** 蔚山, 광주시 남구 백운동 현대 아파트 103-306 ㉠ 062-676-0902, 019-9669-0902
- **金炳鳴** 蔚山, 광주시 남구 봉선2동 502 라인 아파트 101-1907호 ㉠ 016-627-2342
- **金容河** 蔚山, 광주시 남구 진월동 아남 아파트 105-602 ㉠ 062-530-3840, 016-612-2103
- **金得煥** 梁山, 省悟, 광주시 남구 주월1동 456-6 현대아파트 13동 504호 ㉠ 062-676-4093, 011-612-4093
- **申玉湜** 平山, 淸松, 광주시 남구 봉선2동 1001-9 ㉠ 062-671-1212, 011-9605-6631
- **金容俊** 光山, 광주시 남구 진월동 대주아파트 101동 1402호 ㉠ 062-673-2052, 019-662-2052
- **金基哲** 春江, 광주시 남구 백운 1동 벽산 아파트 101동 1202호
- **梁鎮禹** 濟州, 仁谷, 광주시 남구 봉선동 76 포스코아파트 103-208호 ㉠ 062-672-1518

# 알 림

## 1. 본회 제21차 학술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08년 8월 17일(목요일) 10 : 30
- 장 소 : 광주 향교 유림회관
- 주 제 : 河西 文學의 道學的 理解 - 朴俊圭 박사(全南大 명예교수)

## 2. 원고 모집안내

- ① 河西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애경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양회 사랑방' 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천을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성축산농협 175809-52-099266 (예금주: 필암서원 산양회 김용숙)

##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축협 175809-52-099266)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9-832-4562 박래호)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本貫:	雅號: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職:	學歷 및 經歷: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1. 8. 22일 필암서원에서 고흥군 씨등 유림 230명이 모여 구산양계를 "산양회"로 발족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 아래 安淸齋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鎭雄씨(서울대 공대졸, 부산거주, 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 아래 尹絲淳 고려대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1호)100부를 발행 配布.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俊圭 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淸齋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
- 2003. 6.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2호)1,500부를 발행 配布.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 12. 10일 山仰會報 제3호 1500부를 발행 배포.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安淸齋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회장에 朴鍾達, 새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추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 강연.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를 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1500부 발행.
- 2005. 3. 28일 추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청절당에서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추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 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려러 보는 河西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헌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
- 2007년 4. 3 추향제 올리고 '하서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주제로 변은섭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하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음.
- 2007년 12. 21일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집 발간